

진안군민의 장 수상자 선정

부문별 6명 선정... 10월 12일 진안군민의 날 기념식서 시상식 진행



문화장 신팔복



공익장 박관우



산업근로장 손두수



애향장 허현



효행장 전영자



체육장 김만성

진안군은 지난 19일 지역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군민의 장 수상자 6명을 선정했다.

부문별 수상자는 문화장 신팔복 씨(79), 공익장 박관우 씨(60), 산업근로장 손두수 씨(59), 애향장 허현 씨(69), 효행장 전영자 씨(81), 체육장 김만성 씨(56) 등 6명이다.

문화장 신팔복 씨는 진안문화원 이사, 문인협회 진안지부 지부장, 한국예총 진안지회 이사를 역임하며 진안 문학 발전에 기여했다. 2010년 종합문예지 '대한문학'에서 영호남수필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은빛수필문학상, 영호남수필문학상, 완산발문문학상을 수상하며 진안문학의 대외 위상을 높였다.

공익장 박관우 씨는 34년간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

산업근로장 손두수 씨는 흑홍삼 가공품 개발과 수제 흑삼양갱 특허 등록 등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이며 지역 특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6차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애향장 허현 씨는 2014년부터 재진진안군향우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진안사람 어울림마당 등 크고 작은 각종 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도왔다. 특히 전주에 있는 평화공공사를 운영하며 진안출신을 우대 채용하는 등 남다른 고향사랑을 실천해왔다.

효행장 전영자 씨는 57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시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봉양했다. 특히, 8명의 시동생을 친자식처럼 보살피는 등 지역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하다.

체육장 김만성 씨는 진안읍체육회장, 진안군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지역 체육발전과 체육인 복지향상에 힘썼다.

군은 지난 8월 한달 간 점수를 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9월 2일부터 6일까지 공적조사위원들의 조사를 마치고 군민의 장 심사위원회를 열어 6개 부문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12일 제63주년 진안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된다. /진안=우태민 기자

진안군, 농민 공익수당 지급

23일부터 선불카드로 지급

진안군은 2025년 농민 공익수당을 23일부터 7,274명에게 총 32억원(도비 40%, 군비 60%) 규모의 농민수당 지급을 시작한다.

올해부터는 지급 방식이 가구 단위로 농민수당 지급을 개편되어 지급 대상자는 7,274명, 경영체 수는 5,457명이다.

또한 지원 대상도 신청연도 기준 기존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농지를 1,000㎡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조건으로 완화되어 지난해 지급 규모인 5,289농가보다 대상자가 늘어났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들은 23일부터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이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2026년 9월 30일까지이다.

지급액은 1인 경영체 60만원, 2인 이상 경영체 1인당 30만원이며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선불카드는 진안군 관내 카드 가맹점과 전주 효성동 진안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유용 사행업, 전자상거래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급 대상자는 논·밭의 기능과 형상 유지, 비료 및 농약 적정량 사용,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 등 이행조건을 준수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진안=우태민 기자

장수한우량사과랑축제 '장수사과 품평회' 성료

장수군은 제19회 장수한우량사과랑축제 기간인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열린 '장수사과 품평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품평회에서는 장수지역에서 재배된 홍토사과 100품을 대상으로 현장평가, 당도평가, 전문가평가, 관람객 시식평가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대상부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아차상까지 다양한 부문별 우수 사과를 선정했다.

품평회는 장수사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농

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 와 더불어 관람객들의 의견이 반영되며, 장수사과의 탁월한 맛과 품질을 다시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상은 장수를 개장리 광원농장의 이광원 농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은 장수읍 용계리 채령이네 류계열 농가, 우수상은 장수사과농원 정교문 농가, 장려상은 황소갈은농장 문명성 농가가 각각 차지했고, 이어 아차상은 다은농장 김민



수 농가와 평강농장 김성희 농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품평회장에서는 사과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다. 사과보물찾기, 사과조끼, 사과를 킷돌리기 등 가족단위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축제의 즐거움을 더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대표 농특산물인 무주반딧불 복숭아가 동남아시아 수출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무주반딧불 복숭아 동남아 진출

4개국 총 5톤 약 3000만원 규모

무주군 대표 농특산물인 무주반딧불 복숭아가 동남아시아 수출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2025년 7월부터 9월 17일까지 (주)트루델(대표이사 김나정)을 통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홍콩 등 4개국으로 총 5톤, 약 3천만 원 규모의 복숭아가 수출되었다. 지난해 무주농협의 복숭아 수출 실적은 전무했던 연간 약 400톤을 생산하고 있다.

무주 복숭아는 청정 자연환경과 친환경 재배 기반에서 생산되며, 큰 일교차로 인한 높은 당도가 특징이다. 이러한 품질 경쟁력이 동남아 현지 시장에서 '달고 향이 좋은 복숭아'라는 호평을 이어갔다.

과동열 조합장(전북농협 수출협의회 회장)은 "무주복숭아가 올해 동남아 시장에 진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올해 전북농협수출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만큼 전북 농산물 수출에 우리 무주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물량을 지속 확대하고, 조합원들과 품질 고급화 및 유통 경쟁력 강화에 힘써 무주복숭아를 전북을 대표하는 수출 과일로 키워겠다"고 말했다.

이번 성과는 무주복숭아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무주군 농산물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환경 재배 기반에서 생산되며, 큰 일교차로 인한 높은 당도가 특징이다. 이러한 품질 경쟁력이 동남아 현지 시장에서 '달고 향이 좋은 복숭아'라는 호평을 이어갔다.

과동열 조합장(전북농협 수출협의회 회장)은 "무주복숭아가 올해 동남아 시장에 진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올해 전북농협수출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만큼 전북 농산물 수출에 우리 무주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물량을 지속 확대하고, 조합원들과 품질 고급화 및 유통 경쟁력 강화에 힘써 무주복숭아를 전북을 대표하는 수출 과일로 키워겠다"고 말했다.

이번 성과는 무주복숭아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무주군 농산물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찾아가는 소비자권익증진 행사' 24일 개최

'찾아가는 소비자권익증진 행사'가 오는 24일 무주군 무주읍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실내)과 무주국민체육센터 주차장(실외)에서 개최된다.

무주군과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동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지역주민들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자동차 및 가전 기업을 비롯한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들의 협력으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주민의 소비자 보호 및 생활 안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으로,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오

전·오후 2회에 걸쳐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소비자 상담, 건강검진 제공 및 건강검진, 고품차 대상 장수 사진 촬영 등을 실시하며 소형가전(휴대폰, 밥솥 등) 무상점검 및 폐가전도 수거한다.

실외 행사장인 무주국민체육센터 주차장에서는 주요 자동차 기업에서 진행하는 무상점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석유관리원에서는 자동차용 석유(휘발유·경유)의 진위를 가리는 검사도 진행한다.

이뿐만 아니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대형가전 및 보일러 무상 방문 점검 서비스도 병행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국회 입법박람회 참가

진안군은 23일부터 24일까지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리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우수 정책을 홍보한다.

이번 박람회는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국민과 국회가 함께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되는 행사로, 이틀간 1만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안군은 우수 입법·정책 부스를 설치해 △농촌유학 가족제 유형 거주시설 조성, △진안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진안고원촌스런 마을여행 등 지방소멸 대응 정책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특례보증,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활성화 등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을 집중 소개한다.

또한 소개된 정책들을 주제로 한 O/X 퀴즈 원주 시, 기념품을 제공하는 △정책 스탬프 랠리, '내가 바라는 진안의 정책'을 자유롭게 포스트잇에 작성하여 패널에 붙이는 △미래 진안 정책 나무, △SNS 인증 이벤트 등 방문객에게 재미를 안겨줄 수 있는 각종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민 기자

장수군, 제4회 청년의 날 기념 '청년 아시장' 개최

장수군은 오는 25일 오후 6시부터 장수한누리전당 야외공연장에서 '제4회 청년의 날 기념 장수 청년 아시장'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수군 청년협의체가 주최·주관하며, 청년들의 창의적 기획을 바탕으로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 공연 프로그램을 준비해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아간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축하공연에는 합합, 밴드, 댄스 팀 등이 올라 젊은 감각이 살아있는 무대를 선보이며, 청년 노래자랑에서는 참가자들이 끼와 열정을 뽐내고, 우수 참가자에게는 장수사랑상품권과 푸짐한 상품이 수여된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추억의 오락기, 다트·인형뽑기 등 레트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전화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